

#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variables on marital conflict

연세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교수 정문자  
석사 이종원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Chung, Moon Ja*  
*Master : Lee, Jong Won*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I. 용어정의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family of origin variables on marital conflict. Seventy five married couples living together for less than 10 years were chosen from Seoul and Suwon cities. These subjects completed Korean Vers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 Individual Separation Scale, Family Rules Scale, Korea Certificated Egogram, and Marital Conflict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t 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husbands and wive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riangulation, family rules from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onflict. While husbands felt more strongly about their family rules than wives, wives perceived triangulation, and marital conflict higher than husbands.

Second, husbands' controlling ego state, individuation, and family rules explained sixteen percents of husbands' marital conflict. Statistically speaking, husbands' controlling ego state positively influenced on husbands' marital conflict. However, both of husbands' and wives' controlling ego states explained twelve percents of wives' marital conflict, and husbands' controlling ego stat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주제어(Key Words):** 원가족(family of origin), 개인분화(individuation), 부모 자아 상태(parent ego state), 가족규칙(family rule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Corresponding Author: Moon-Ja, Chung,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149 E-mail: mjchung@yonsei.ac.kr

## I. 서 론

원가족(family of origin)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 사회, 심리적으로 소속감을 공유하는 가족으로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의 가족을 말한다.

원가족과 부부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가족에서 부모의 이혼과 갈등을 경험한 성인 자녀들은 결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나 감정이 적으며, 이혼을 좀 더 쉽게 수용한다는 보고(Coleman, 1984; Kinnauld & Gerrard, 1986)와 이러한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결혼 만족도를 예전한다는 연구(최현미, 1997 재인용)가 있다. 더하여, 자기 원가족의 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한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높으며(Forrest, 1991; Wilcoxon & Hovestadt, 1983),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아 분화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고, 부부 갈등이 낮았다는 결과들(전춘애, 1994; Lavery, 1984; Mee-Gaik, 1991; VanAmburgh, 1987)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동거 기간 만 10년 미만 부부들이 10년 이상의 부부들보다 적응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혼 사유 중 부부 불화가 77%를 차지하고, 결혼한 부부에게 어려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 가정법률상담소, 2002). 이는 새롭게 형성된 핵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각자의 원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부부의 결혼 만족도나 부부 갈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원가족은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하여 핵가족을 이루어 생활할 때에도 부부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족 성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주요 요인임이 임상에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족과 부부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뿐 아니라 원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원가족의 건강성과 부부의 결혼만족도(Forrest, 1991; Wilcoxon & Hovestadt, 1983),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아 분화와 결혼 만족도 또는 부부 갈등과의 관계

(전춘애, 1994; Lavery, 1984; Mee-Gaik, 1991; VanAmburgh, 1987), 자아 분화와 갈등 대처(이현주, 1996; 한미향, 1999), 그리고 원가족 척도 자체에 관한 연구(최현미, 1997; Bray, Williamson, & Malone, 1984) 등으로 특정 원가족 변인과 부부의 변인과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어 부부간 적응과 원가족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러 원가족 관련변인들의 부부간 적응에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가족과 관련된 변인들 중 원가족 문화 경험이 부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들(Gilligan, 1982; Lim & Jennings, 1996; 전춘애, 1994)과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부부 갈등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들(박영옥, 1986; 김혜경, 1986; 송말희, 1990; 최규련, 1994; 한미향, 1999)을 종합해 볼 때 원가족 관련변인에 있어서도 부부 갈등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것에 관한 연구들도 소수에 불과하므로 원가족 관련변인들과 부부 갈등에 있어서의 부부간 성차를 살펴보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 보다는 연구결과가 적게 보고된 부부 갈등과 이에 관련되는 원가족 변인들을 살펴보되 이 결과를 부부의 성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원가족 관련 변인에 있어서 부부 간의 차이와 부부 갈등에 미치는 다양한 원가족의 영향 및 관계를 총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연구의 결과가 원가족 연구자들, 원가족과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부부, 상담가, 교육 프로그램 실행자들에게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부는 각자가 지각한 원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원가족으로부터의 개인 문화, 원가족의 가족 규칙, 부모 자아 상태, 부부 갈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가?
2. 부부가 지각한 원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원가족으로부터의 개인 문화, 원가족의 가족 규칙, 부

부의 부모 자아상태는 부부의 부부 갈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비임상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부부들의 결혼 및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대체로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족기능이 발휘되며, 자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나 생활 만족도가 높다(김순옥, 1990; 재인용, Farrel & Barnes, 1993). 그러나, 그 반대일 때 가족 만족도가 낮고(김정옥, 1995), 부부 갈등도 낮다(최규련, 1994)고 보고되고 있다. 또, 부부 갈등의 경우 부인이 남편에 비해 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며, 갈등에 있어서도 부인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규련, 1994). 그러나, 이러한 위의 선행 연구들은 연구대상 가족의 가족 기능과 이들 가족의 부부 변인에 관한 연구이며, 원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을 결혼한 자녀 부부의 변인들과 연관시켜 연구한 것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들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의미 있고 필요하다.

### 2. 자아분화

원가족으로부터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간의 갈등, 우울, 불안과 여러 가지 역기능적 행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Feigal, 1985; Garfinkel, 1980; Kear, 1978)이 있다. 이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부 관계나 의미 있는 관계에서 심리적인 안녕(Bohlander, 1999), 정서적인 친밀감(McCreanor, 1988), 부부 적응(고현선, 1993), 결혼 안정성(전춘애, 1994; Skowron & Friedlander, 1998), 결혼 만족도(Lim & Jennings, 1996; McCreanor, 1988)가 높았으며, 스트레스 증상

(Skowron & Friedlander, 1998)과 융합이 덜하였고 (Mee-Gaik, 1991), 부부 갈등을 덜 겪으며(Lim & Jennings, 1996), 갈등 대처 방안 중 감정 및 행동표출,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이성적 대처와 같은 문제 해결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을 많이 사용하였다(송말희, 1990; 한미향, 1999).

이와는 반대로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간에 스트레스, 갈등, 우울, 불안 등 여러 가지의 역기능적 행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금온순, 1996; 이창만, 1992; 이현주, 1996; 한미향, 1999; Feigal, 1985; Garfinkel, 1980; Griffin & Apostol, 1993; Kear, 1978; Mee-Gaik, 1991). 그러나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아 분화와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용한 Bowen의 '자아 분화'라는 개념 속에는 가족자아집합체로부터 개인의 분화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기의 감성으로부터 이성을 분리해 내는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아 분화 관련 연구(제석봉, 1989; 전춘애, 1994) 중에는 대인 관계에서 자율적인 정도를 '자아 분화' 척도의 하위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를 전적으로 원가족의 영향으로 보기是很 어렵다. 그러므로 원가족과 관련된 개인분화 변인으로 정서적 단절, 원가족 부모와의 삼각화, 원가족 내에서의 가족 투사 과정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부부 갈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어느 정도 분화되어 있는지와 부부 갈등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 3. 부모자아상태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주로 성격간의 갈등이 제기되는데 개인의 '성격' 구조에서 초자아는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와의 동일시 및 모방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3세~5세의 아동이 남근기에 부모와의 동일시 과정을 통하여 부모의 가치관, 목표, 습관 등까지 모두 함께 받아들임으로써 초자아의 발달을 이룬다고 보는 Freud의 superego는 부모에 의하여 아이에게 해석되고, 부모와의 동일시와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별과 보상체계에 의해 강화

되어 자녀에게 내면화된 표상이다(Monte, 1980). 그러나 Freud의 'superego'는 가설적인 개념으로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 반면, Berne의 '부모 자아 상태(parent ego state)'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Freud의 'superego'에 상응하는 개념이면서도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개인의 인식과 결단에 의하여 변화나 개선이 가능하다는 비결정론적인 면에서 부부 갈등과의 관련성과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 모두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4. 가족규칙

자녀를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행동과 의식에 관한 규범인 가족규칙은 자녀의 성장 경험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가족 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 벼지니아 사티어 연구회 역, 2000). 가족 규칙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의식적인 규범으로 내면화 될 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표현되므로 결혼 이전 원가족의 가족규칙이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룬 부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것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가족 내에서의 가족 규칙이 결혼을 하여 새롭게 가족을 이룬 성인 자녀의 상호 작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 5. 부부갈등

부부갈등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Rice(1979)는 부부갈등의 요인을 사회적 상관요인(지위, 소득, 교육문제), 관계요인(애정, 존경, 관계의 평등, 성적관계, 의사소통, 역할 기대, 친밀성, 자녀관계 등의 문제), 개인적 상관요인(건강, 종교, 가치관, 취미 등의 문제) 등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이 중 부부의 관계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하였다. 부부의 관계요인과 부부갈등에 관한 국내연구 중 원가족과의 관계 요인이 부부 갈등과 관련 있다는 결과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유가효, 1976; 유영주,

1979; 이신영, 1983; 한미향,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원가족과 관련된 독립변인으로 원가족 전체의 역동성을 보기 위하여 원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원가족으로부터 개인의 분화정도를 정서적 단절, 삼각화, 가족특사를 중심으로 개인분화를 측정하였으며, 부부 각자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과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 온 부모 자아 상태를 측정하였고, 자녀 사회화 과정 속에서 강조되는 원가족내의 규범이 결혼한 성인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원가족의 가족규칙을 원가족과 관련한 독립변인들로 포함시켰으며, 이들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성인 자녀 부부의 갈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파악하였다.

### III. 용어정의

#### 1.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Olson과 Russell 그리고 Sprenkle(1983)이 정의한 '응집'은 '가족간의 친밀감,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개념으로서 외적으로는 가족 경계선의 침투성 정도와 내적으로는 가족간의 친밀감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김수연·김득성, 1997). 반면 '적응'은 '상황적으로 또는 빌랄 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가족체계가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관계의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조작적 개념들을 사용한다.

#### 2. 원가족으로부터의 개인 분화

Bowen의 자아 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정신 내적으로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분화되어 있는 정도 즉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타인에게 용해되지 않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며 타인으로부터 자율적인 정도를 말한다.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 off)은 개인이 자기가

태어난 가정 내 가족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서적 애착을 부모로부터의 격리, 위축, 도피, 부모가 중시하는 것을 부정 혹은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극심한 정서적 분리의 양상을 의미한다(송성자, 1998).

삼각화(triangulation)는 가족 내의 두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 염려, 긴장이 존재할 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 삼자를 두 사람의 관계에 연루시킬 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Charles, 2001 재인용).

가족 투사 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은 삼각화의 결과로 부모가 자신의 미분화와 미성숙을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불안을 경감시키는 기제를 말한다(Bowen, 1976).

이상의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한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과의 관계로부터 심리적, 정서적으로 융합, 단절, 연루되지 않고 자율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정도'를 원가족으로부터의 '개인분화'라고 정의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삼각화, 가족 투사, 정서적 단절의 3개 하위개념으로 원가족으로부터의 '개인분화'를 살펴보았다.

### 3. 부모 자아 상태

Berne(1964)은 자아상태(ego-states)를 "감정 및 사고, 이에 관련된 일련의 행동 양식을 종합한 하나의 시스템이며, 일관된 감정과 경험의 유형이 그에 상응하는 일관된 행동 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 상태란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초자아(superego), 자아(ego), 원초아(id)라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성격구조와는 달리, 지금 여기에서(here and now) 본인 자신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그것이라고 의식할 수 있는 것. 혹은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생각, 느낌, 행동의 방식을 가리킨다(우재현, 1999).

Berne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세 개의 자아상태로 그 성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자아란 곧 부모 자아 상태(Parent ego state), 성인 자아 상태(Adult ego state) 및 어린이 자아 상태(Child ego state)를 말한다(이기준, 1989).

부모 자아 상태는 '주로 부모나 그 외 정서적으로 중요한 인물 형제 및 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학습된 생활개념'(Taught concept of life)이다(윤순임·설기문 외, 2000). 부모 자아는 크게 통제적 부모 자아(Controlling/Critical Parent: CP)와 양육적인 부모 자아(Nurturing Parent: NP)로 구분한다.

통제적 부모 자아는 주장하고 비평하며 처벌적인 완고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부모 자아로 개인 내적 으로 또한 외적으로 지향한다(김규수·류태보, 1993).

양육적 부모 자아는 동정적, 보호적, 양육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 부모 자아 역시 개인 내적, 외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치며, 상대방이 원조를 필요로 할 때 부모처럼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며 따뜻한 말을 해주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김규수·류태보, 1993). 본 연구에서도 부모 자아 상태에 관한 정의는 Berne의 이론에 따라 사용하였고, 원가족에서 형성된 부모자아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인 부부의 부모자아상을 측정하였다.

### 4. 가족 규칙

가족 규칙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행동, 인식에 관한 규범으로 이러한 규칙들은 모든 가족 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한국 버지니아 사티어 연구회 역, 2000).

본 연구에서는 가족 규칙을 '가족 구조 내에서 필수적이며 역동적이고 영향력이 강한 행동과 의식에 관한 규범'으로 정의하였으며, 신화나 비밀에 관한 규칙을 제외한 생활 규칙, 위계 규칙, 성과 성역할 규칙, 감정규칙의 문항들을 가지고 가족규칙을 측정하였다.

### 5. 부부 갈등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을 '가족 체계 속에서 부부가 서로간의 차원의 차이와 목표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하여 오

해나 상호 이해의 결여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나 긴장으로 위험과 기회의 두 속성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원시에 사는 결혼 10년 미만의 부부 75쌍으로 이들은 서울 시내 3개 어린이집과 수원시내 어린이집 1곳, 서울 시내 2곳 어린이집의 기관장들이 다니는 교회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 부부들의 특성에 관련된 정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남편의 경우 31세~40세가 81%, 부인은 31세~40세가 74%였다. 학력을 보면, 남편은 전문대,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80%, 부인의 경우도 전문대, 대졸 이상이 76%로 고학력자가 다수였다.

직업을 살펴보면, 남편은 사무직, 관리직 종사자가 55%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반면, 부인은 전업주부가 45%였고, 그 다음이 전문직 종사자로 27%였다. 남편의 68%와 부인의 67%가 부모님 생존인 반면, 남편의 23%와 부인의 24%가 모친만 살아 계신다고 보고하였다.

출생 순위를 보면 남편의 경우 장남이 43%로 가장 많았고, 부인의 경우 장녀가 45%로 가장 많았다. 남편과 부인 각각 자기 부모와의 상호 왕래 횟수를

<표 1> 연구대상 부부의 특성 (N=150)

	내 용	남편 빈도 (%)	부인 빈도 (%)
연령	21세~30세	9(11.9)	18(23.9)
	31세~40세	61(81.4)	56(74.8)
	41세 이상	5( 6.7)	1( 1.3)
학력	고졸이하	15(20.0)	18(24.0)
	전문대, 대졸	44(58.7)	45(60.0)
	대학원 이상	16(21.3)	12(16.0)

<표 1> 계속

	내 용	남편 빈도 (%)	부인 빈도 (%)
직업	무직, 전업주부, 학생	4( 5.4)	34(45.4)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3( 4.0)	4( 5.3)
	사무직, 관리직	41(54.6)	12(15.9)
	전문직	9(12.0)	20(26.7)
	자영업, 기타	18(24.0)	5( 6.7)
부모 생존	모두 생존	51(68.0)	50(66.7)
	모두 사망	3( 4.0)	3( 4.0)
	부친만 생존	4( 5.3)	4( 5.3)
	모친만 생존	17(22.7)	18(24.0)
출생 순위	장남, 장녀	32(42.7)	34(45.3)
	차남, 차녀	18(24.0)	17(22.7)
	삼남, 삼녀이하	10(13.3)	7(9.3)
	막내나 외동	15(20.0)	17(22.7)
친부모와 왕래횟수	1년에 1~4회	15(20.0)	9(12.0)
	1년에 5~9회	17(22.7)	19(25.3)
	1년에 10~12회	11(14.6)	14(18.7)
	1개월 2회 이상	26(34.7)	26(34.7)
	친부모와 동거	6(8.0)	7( 9.3)
배우자 부모와의 왕래횟수	1년에 1~4회	19(25.3)	18(24.0)
	1년에 5~9회	19(25.3)	16(21.3)
	1년에 10~12회	12(16.0)	14(18.7)
	1개월에 2회 이상	20(26.7)	22(29.3)
	배우자 부모와 동거	5( 6.7)	5( 6.7)
결혼기간	결혼 직후~2년 미만	12( 8.0)	
	2년 이상~4년 미만	26(17.3)	
	4년 이상~6년 미만	62(41.4)	
	6년 이상~8년 미만	26(17.3)	
	8년 이상~10년 미만	24(16.0)	
월총수입	100만원 이상~150만원 이하	22(14.7)	
	151만원 이상~250만원 이하	36(24.0)	
	251만원 이상~350만원 이하	38(25.3)	
	351만원 이상	54(36.0)	
결혼계기	중매 결혼	10( 6.7)	
	연애 결혼	114(76.0)	
	중매반, 연애반	26(17.3)	
자녀수	자녀 없음(임신중 포함)	16(10.7)	
	1명	52(34.7)	
	2명	82(54.6)	
현재동거	부부만 동거	16(10.7)	
	가족 부부와 자녀	114(76.0)	
	부부, 자녀, 자기 부모 1인 이상	12( 8.0)	
	부부, 자녀, 배우자 부모 1인 이상	8( 5.3)	

보면, 남편의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이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년에 5회~9회가 23%였으며, 부인의 경우 1개월 2회 이상이 35%, 1년에 5회~9회가 25%였다.

배우자 부모와의 상호 왕래 횟수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장인, 장모와 상호 왕래하는 횟수가 1개월에 2회 이상이 27%, 1년에 5회~9회가 25%였고, 부인의 경우에 시부모와의 상호 왕래 횟수가 1개월에 2회 이상이 29%, 1년에 5회~9회가 21%였다. 자기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상호 왕래 횟수를 1년에 10회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남편의 경우 자기 부모와의 왕래는 10회 미만이 43%였고, 배우자 부모와의 왕래는 10회 미만이 51%였다. 부인의 경우 자기 부모와의 왕래는 1년에 10회 미만이 36%, 시부모와의 왕래는 10회 미만이 45%로 남편과 부인 모두 배우자의 부모보다는 자기의 부모와 더 빈번한 왕래를 하며,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자기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와 좀 더 빈번한 왕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4년 이상~6년 미만인 부부가 전체 연구 대상자의 41%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월수입은 남편의 기록을 참조하여 조사한 결과 월 총수입이 351만원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251만원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61%였다. 결혼하게 된 계기를 보면, 연애 결혼 76%, 중매반·연애 반이 17%였다.

자녀수는 2명인 부부가 55%, 1명인 부부가 35%로 자녀가 1인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90%였다. 현재 동거 가족의 구성을 보면, 부부만 동거한다거나, 부부와 자녀만 동거한다고 보고한 비율이 전체의 87%로 가족 구성 형태상으로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 구조를 우세하게 보이고 있다.

## 2. 측정도구

### 1)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Olson과 Bell, 그리고 Portner(1982)가 개발한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FACES II)를 한국의 가족 상황에 맞도록 번안 ·

수정한 김진희(198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응집성과 적응성의 각 문항 채점방식은 김진희(1984)의 채점방식과 반대이다. 즉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거의 그렇다'가 5점이다. 따라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응집성은 16점~80점, 적응성은 14점~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응집성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56 이었고, 적응성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2였다.

### 2) 원가족으로부터의 개인 분화

개인 분화는 정서적 단절, 부모와의 삼각화, 가족 투사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 문항이다. 정서적 단절은 1번~14번, 부모와의 삼각화는 15번~20번, 가족투사는 21번~26번까지이다. 정서적 단절은 전춘애(199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단절은 총 14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8번, 9번, 10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들이다. 삼각화는 제석봉(1989)의 도구 중 '부모와의 삼각화' 관련되는 3문항과 전춘애(1994)의 도구 중 부모와의 삼각화와 관련되며, 요인부하량이 .35 이상인 4문항 중에서 이들을 수정하여 연구자가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투사는 제석봉(1989)의 도구에서 신뢰도 계수가 자아 분화 영역 중 가장 높게 보고된(.79) 6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개인 분화의 총 26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평가한다.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를 평정한다. 따라서 점수의 총점 범위는 26점~1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으로부터 개인이 분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단절 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1, 삼각화는 .67, 가족 투사는 .80이었으며, 개인 분화 총 26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9였다.

### 3) 부부가 지각한 원가족의 가족규칙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규칙의 문항들은 송성자와 정문자(1994)의 가족 규칙의 실례 및 이경희와

옥선화(1999)의 자기 인식 향상을 통한 부부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시안의 가족규칙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생활 규칙, 성과 성 역할에 관한 규칙, 위계에 관한 규칙, 감정 규칙의 네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로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5점 척도로 만들었다.

가족 규칙 총 23문항에서 생활 규칙은 5문항(1번~5번), 성과 성역할 규칙은 7문항(6번~12번), 위계 규칙은 6문항(13번~18번), 감정 규칙은 5문항(19번~23번)으로 되어있다.

가족 규칙의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아도 된다’ 1점, ‘약간 그러지 않아도 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래야 한다’ 4점, ‘거의 그래야 한다’ 5점이 부여된다. 점수의 총점 범위는 23점~1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 내에서 지켜져 온 가족 규칙을 부부 각자가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를 보면, 생활 규칙이 .82, 성과 성역할 규칙이 .76, 위계 규칙이 .83, 감정 규칙이 .82였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 4) 부부가 지각한 부모 자아 상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자아 상태는 한국 교류 분석 협회(1995)에서 만든 한국 표준화 이고그램(KEG) 성인용 점검표 총 50문항 가운데서 부모 자아 상태 점검 문항에 해당되는 20문항을 본 연구자가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한국 표준화 이고그램 전체의 신뢰도 계수 Cronbach는 .74이며, 내용타당도는 .84, 준거관련타당도는 .87로 보고되었다(우재현, 1999).

발췌한 20문항 가운데 1번부터 19번까지의 모든 홀수 문항 총 10문항이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에 관한 문항이고, 나머지 2번부터 20번까지 짝수문항 총 10문항이 양육적 부모 자아 상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와 관련한 10개 문항 중 너무 단정적인 내용일 때 사회적인 바람직성에 맞추어 표기할 우려가 있고, 예비조사시 그런 의견이 여러 번 나와 원 척도에서 3, 7, 11, 13, 19번의 경우 ‘~한다’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을 ‘~하는 편이다’

로 수정하여 본조사에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평정척도로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거의 그렇다’ 5점이어서 각 하위변인마다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 부모 자아 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의 총점 범위는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와 양육적 부모 자아 상태 각각 10점~5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의 신뢰도 계수는 .70였으며, 양육적 부모 자아 상태의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 5) 부부 갈등

부부 갈등은 ‘부부의 갈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최규련(1994)의 “부부 갈등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최규련의 도구에서는 남편용 총 38문항, 부인용 총 39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용과 부인용 모두 각각 3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문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하 성격) 관련문항은 8문항(1번~8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89였다. 성생활 및 대화문제로 인한 갈등(이하 성과 대화)과 관련한 문항은 10문항(9번~18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배우자 원가족과의 관계로 인한 갈등(이하 배우자 원가족)과 관련한 문항은 4문항(19번~22번)이며,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자기 원가족과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이하 자기 원가족)과 관련된 문항은 3문항(23번~25번)이며,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가정 경제문제로 인한 갈등(이하 경제)과 관련되는 문항은 3문항(26번~28번)이며, 신뢰도 계수는 .75였다. 남편의 나쁜 습관으로 인한 갈등(이하 습관)과 관련되는 문항은 5문항(29번~33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69였다. 자녀 지도로 인한 갈등(이하 지도) 관련 문항은 2개의 문항(34번~35번)으로 신뢰도 계수는 .77이었고, 부부 갈등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4였다. 부부 갈등은 1점~5점으로 나누어 점수를 평정하며, 점수 범위의 분포는 35점~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남편과 부인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부를 쌍으로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인인 부부 갈등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남편과 부인의 원가족 관련변인 및 부부 갈등의 차이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들인 원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원가족으로부터의 개인 문화, 원가족의 가족 규칙, 부부의 부모 자아 상태와 종속변인인 부부 갈등에서 남편과 부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편, 부인 각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에 대해서도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가족 규칙, 부부 갈등이었으며 개인 문화의 하위 영역인 삼각화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원가족의 가족 규칙에서는 전체적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원가족의 가족 규칙의 영향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성역할 규칙( $p<.05$ ), 위계 규칙, 감정 규칙, 그리고 규칙 총합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원가족의 가족 규칙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삼각화의 경우 부인의 삼각화 점수가 남편의 삼각화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부부 갈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 $p<.05$ ). 하위영역 중에서는 배우자 원가족과 자신의 관계로 인한 갈등( $p<.05$ ), 자신의 원가족과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 $p<.01$ )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남편과 부인의 원가족 변인 및 부부 갈등의 차이(N=150)

변인	하위	남 편	부 인	paired t
		M(SD)	M(SD)	
응집성		51.80( 6.52)	51.48( 6.82)	.39
적응성		45.72( 7.09)	46.28( 6.39)	-.61
개인 문화	정서적단절	33.64(11.58)	35.72(13.12)	-1.10
	삼각화	7.66( 3.23)	8.73( 3.37)	-1.87*
	가족투사	10.91( 4.56)	10.52( 4.35)	0.58
	총합	51.53(15.91)	54.25(17.45)	-1.12
	생활규칙	19.75( 3.87)	18.89( 4.57)	1.30
가족 규칙	성과성역할	22.12( 5.73)	20.35( 5.42)	1.88*
	위계규칙	22.03( 4.84)	19.81( 5.01)	2.84**
	감정규칙	14.93( 4.43)	13.20( 4.08)	2.72**
	총합	78.83(15.03)	72.25(14.22)	2.88**
	통제적 부모자아	27.45( 5.83)	27.85( 5.17)	-.53
부모 자아	양육적 부모자아	35.65( 5.86)	36.23( 6.38)	-.70
	성격차이	17.67( 6.22)	17.89( 6.52)	-.30
	성과대화	19.92( 6.77)	20.77( 8.05)	-1.16
	배우자 원가족관계	5.43( 2.72)	6.32( 2.79)	-2.13*
	자기 원가족관계	7.05( 3.07)	8.48( 3.41)	-3.12**
부부 갈등	경제 (가정경제)	5.57( 2.39)	5.87( 2.47)	-1.08
	남편습관	7.45( 2.49)	7.70( 3.11)	-.80
	자녀지도	3.37( 1.63)	3.72( 2.14)	-1.31
	총합	66.95(19.71)	71.45(20.50)	-2.06*

\* $p<.05$ , \*\* $p<.01$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독립변인들로는 부부가 각기 지각한 원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 자아 상태의 하위변인인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와 양육적 부모 자아 상태였다.

### 2. 부부 갈등에 대한 원가족 독립변인 설명력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남편의 원가족 관련 변인과 부인의 원가족 관련변인을 함께 넣고, 종속 변인인 부부 갈등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과 부인이 지각한 부부 갈등으로 각기 나누어 이들에 대

한 원가족 관련변인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 1) 남편의 부부 갈등에 대한 원가족 관련 변인의 설명력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의 독립변인들인 부부가 지각한 원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원가족으로부터의 개인 분화, 원가족의 가족 규칙, 부부의 부모 자아 상태가 부부갈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종속변인인 부부 갈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어 통제를 해야할 가외 변인들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한 결과 학력, 직업, 수입, 결혼형태는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결혼기간, 자기 친부모와의 왕래 횟수, 자녀수가 종속변인인 남편의 부부 갈등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인인 남편의 부부 갈등과 상관이 있는 변인들 중 상호 상관 관계가 .52여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결혼 기간과 자녀수 중 상관계수와 유의도가 낮은 결혼 기간의 한 개 변인을 제외하고 자녀수와 친부모와의 상호 왕래 횟수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시 1단계로 투입하여 통제한 후 2단계로 원가족과 관련된 독립변인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로 투입할 남편과 부인의 원가족 관련 독립변인들을 가지고 종속변인인 남편이 지각

한 부부 갈등과의 상관 관계를 구한 결과 남편의 원가족과 관련되는 독립변인들만이 남편의 부부 갈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남편의 원가족 관련변인들로는 남편의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 남편이 지각한 원가족의 가족 규칙, 원가족으로부터의 남편의 개인 분화 세 개의 변인들이었다. 반면, 부인의 원가족과 관련되는 독립변인들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가외변인들과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상관 관계표에 의하면,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남편들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반면 자기 친부모와 상호 왕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부 갈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원가족의 가족 규칙을 남편이 높게 지각할 수록, 원가족으로부터 남편이 개인 분화되지 못 할수록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 점수가 높았다. 종속변인 남편의 부부 갈등과 관련된 가외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 관계표를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남편의 부부 갈등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 관계표를 보면, 결혼 기간과 자녀수간의 상호 상관관계계수가 .52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어 이 두 변인 중 상대적으로 다른 변인들과 상호상관과 유의도가 높은 결혼기간을 제외하고, 자녀수와 친부

<표 3>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남편의 부부 갈등과의 상관  
(N=75)

단계	변 인	남편의 부부 갈등
1단계	가외변인	
	결혼기간	.29*
	자녀수	.30**
	친부모와의 왕래 횟수	-.35**
2단계	독립변인	
	통제적 부모자아상태(남편)	.40**
	가족 규칙(남편)	.26*
	개인 분화(남편)	.23*

\*p<.05, \*\*p<.01

<표 4> 남편의 부부 갈등과 관련된 독립변인 간의  
(N=75)

	(1)	(2)	(3)	(4)	(5)	(6)
(1)	-	.52**	-.37**	.13	-.01	.09
(2)		-	-.30**	.14	.07	.29*
(3)			-	.06	-.04	.02
(4)				-	.18	.33**
(5)					-	.32**
(6)						-

\*p<.05, \*\*p<.01

(1) 결혼기간, (2) 자녀수, (3) 친부모와의 왕래 횟수  
(4) 남편의 개인분화, (5) 남편 원가족의 가족규칙  
(6) 남편의 통제적 부모자아

〈표 5〉 남편의 부부 갈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75)

종속변인	남편의 부부 갈등			
	1 단계		2 단계	
	$\beta$	$\Delta R^2$	$\beta$	$\Delta R^2$
친부모와의 왕래(남편) 자녀수	-.28* .22		-.33** -.09	
남편의 가족 규칙 남편의 개인 문화 남편의 통제적 부모자아		.16**	.12 .11 .31**	
전체 $R^2$			.32**	.16**

\*p<.05, \*\*p<.01

모와의 상호 왕래 횟수를 1단계에, 남편의 개인 문화, 남편 원가족의 가족 규칙, 남편의 통제적 부모자아 상태를 독립변인으로 2단계에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친부모와의 상호 왕래 횟수와 자녀수를 통제한 후에도 원가족과 관련 한 독립변인들 중 남편의 통제적 부모자아상태는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 투입한 변인 중 남편의 자기 친부모와의 상호 왕래 횟수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자기의 친부모와 상호 왕래를 많이 할 수록 부부 갈등을 낮게 지각하였다. 1단계에 투입된 변인들은 남편이 지각한 갈등의 16%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여러 원가족 관련변인들 중 남편의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 투입된 변인들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을 16% 설명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 투입한 변인들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의 32%를 설명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2) 부인의 부부 갈등에 대한 원가족 관련변인 의 설명력

부인의 가외변인들과 원가족 관련 독립변인들이 부인의 부부 갈등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인의 부부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가외변인과 원가족 독립변인의 상관 관계표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부인의 부부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가외변인으로는 가족의 월수입과 결혼 기간, 자기 친부모와의 왕래 횟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인이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 반면, 부인이 자기 친부모와 왕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인이 지각한 부부 갈등이 낮아 자기 원가족과의 상호 왕래가 부부들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원가족 관련 독립변인들 중에서는 남편과 부인 각자의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만이 유일하게 부인의 부부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남편의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와 부인의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 점수가 높을수록 부인이 지각한 부부 갈등도 높았다. 이는 부모의 자아 상태 중 특히 자신과 타인에게 지시적이고, 통제적으로 지향하는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가 높을수록 부인이 지각한 부부 갈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인의 부부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독립변인간의 상호

〈표 6〉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부인의 부부 갈등과의 상관  
(N=75)

단계	변인	부인 부부 갈등
1단계	가외변인	
	가족 월수입	.27*
	결혼 기간	.33**
	부인의 친부모와의 왕래 횟수	-.27*
2단계	독립변인	
	남편의 통제적 부모 자아상태	.23*
	부인의 통제적 부모 자아상태	.27*

\*p<.05, \*\*p<.01

〈표 7〉 부인의 부부 갈등과 관련된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  
(N=75)

	(1)	(2)	(3)	(4)	(5)
(1)	-	.24*	-.24*	.29*	.30**
(2)		-	-.30**	.09	.04
(3)			-	.06	-.11
(4)				-	.25*
(5)					-

\*p<.05, \*\*p<.01

- (1) 가족월수입, (2) 결혼기간, (3) 친부모왕래  
(4) 남편의 통제적 부모자아, (5) 부인의 통제적 부모자아

상관 관계표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처럼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보이는 변인들이 없어 위의 모든 변인을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부인의 부부 갈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 의하면, 가족 월수입, 결혼 기간, 친부모 와의 왕래 횟수를 통제한 후에도 남편과 부인 원가족 관련 변인들 중 남편의 통제적 자아 상태는 부인이 지각한 부부 갈등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단계에 투입한 변인 중 결혼기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기간이 길수록 부인의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

〈표 8〉 부인의 부부 갈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75)

종속변인 독립변인	부인의 부부 갈등			
	1 단계		2 단계	
	$\beta$	$\Delta R^2$	$\beta$	$\Delta R^2$
가족월수입	.19		.05	
결혼기간	.25*		.24*	
친부모와 왕래 횟수	-.10	.15**	-.13	
통제적 부모자아(남편)			.30**	
통제적 부모자아(부인)			.17	.12**
전체 $R^2$				.27**

\*p<.05, \*\*p<.01

1단계에 투입된 변인들은 부인이 지각한 갈등의 15%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원가족 관련변인들 중 남편의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만이 부인의 부부 갈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부모 자아 상태가 발달하여 이를 부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사용할수록 부인이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단계에 투입한 변인들은 부인의 부부 갈등을 12%설명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 투입한 변인들이 부인이 지각한 부부 갈등에 미치는 총 설명력은 27%였다. 연구결과 부인의 부부 갈등에는 부인 원가족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남편의 원가족 관련변인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부부 갈등과 원가족 관련변인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각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에 있어 남편과 부인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차이는 개인 분화의 영역중 삼각화에서만 부인이 남편보다 삼각화를 높게 지각하였다. 반면, 정서적 단절과 가족 투사에서는 통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부인이 남편보다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의 경향이 적고, 가족퇴행이 적다고 보고한 한미향의 연구(1999)와 비교할 때 동일한 삼각화를 연구한 결과가 아니어서 동등 비교를 하기 어렵지만,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배우자의 선택에서 자아분화 정도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외국의 연구들(Bowen, 1976; McCreaner, 1988; Mee-Gaik, 1991; Vayghn, 1989)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부인이 남편보다 자

아분화의 평균점수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금온순, 1996; 이창만, 1992; 한미향, 1999). 그러나 후속연구를 통하여 좀 더 자료가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부모와의 삼각화 점수가 부인이 더 높은 이유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들이 아들보다는 딸에게 정서적으로 더 의지하고 부모 사 이를 중재하고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더 기대하고 격려하는 한국 문화와 관계 있으리라고 본다.

가족 규칙과 관련한 결과를 보면, 성과 성역할 관련 규칙( $p<.05$ ), 위계 규칙과 감정 규칙, 규칙 총합 ( $p<.01$ )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원가족의 규칙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직접 관련되는 선행연구는 없으나, 이러한 결과는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수긍이 가는 결과로 보여진다. 즉, 가족 내에서 '남자는 ~해야한다', '여자는 ~해야한다'는 규칙과 위계가 강한 사회에서 이러한 규칙을 지키는데 권력 우위에 있는 남성들에게는 규칙의 강조가 오히려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규칙을 더 강하게 느끼며,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감정 규칙에 관하여 부인보다는 남편들이 더 높게 지각하는 이유로는 가족 내에서 딸보다는 아들에게 언어적인 표현이나 감정 표현을 절제시키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차이에서 기인된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종속변인인 부부 갈등의 경우 전 하위영역에서 남편보다 부인의 갈등 점수가 높았는데( $p<.05$ ), 부인이 남편보다 부부 갈등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이러한 결과는 부부 갈등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김혜경, 1986; 박영옥, 1986; 송말희, 1990; 최규련, 1994; 한미향, 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부부 갈등의 여러 영역 중 배우자 원가족과 자신과의 관계로 인한 갈등( $p<.05$ ), 자신의 원가족과 배우자의 관계로 인한 갈등( $p<.01$ )에서는 부인이 남편보다 갈등 지각 점수가 의미 있게 높았는데, 이는 원가족과 관련한 부부 갈등이 부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친정보다는

시가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 가정 법률 상 담소의 2002년 가정상담 자료에서 여성 내담자의 이혼사유 중 2위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갈등의 하위요인들 중 시가/본가와의 문제요인을 제외하고 친정/처가와의 문제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는 한미향 (1999)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위의 결과 중 삼각화와 부부 갈등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삼각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각 배우자의 정서적인 성숙도와 부부 갈등을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하여 한 쪽 배우자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밀착되어 있을 경우 부부 결합이 어렵고, 부모와의 문제를 부부 관계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보고한 Guerin, Fay, Burden 그리고 Kautto의 연구(1987)와도 일맥상통한다.

독립변인들의 하나인 부부 각자가 지각한 자기 원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살펴보았는데, 남편과 부인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부인이 남편보다 높게 지각하였다는 최규련(1994)의 연구결과와는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 부부들을 응집성과 적응성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남녀를 각기 상하 집단으로 나눈 후 부부를 그룹으로 묶어 상상, 상하, 하상, 하하인 4개의 집단으로 부부를 쌍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상상 이거나 하하이어서 평균 정도가 비슷한 부부쌍이 응집성은 전체 75쌍 중 46쌍, 적응성은 75쌍 중 42쌍으로 평균의 차이가 큰 쌍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가 비슷한 부부가 많았으며, 자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아니라 자녀가 지각한 원가족의 적응성과 응집성이므로, 최규련의 연구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부모 자아 상태에 있어서는 남편과 부인 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과 직접 관련되는 선행 연구는 없다. 다만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들이 각기 다른 양육방식을 사용하며 격려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

고(Block, 1982; Fagot, 1978), 부모의 성에 따라서도 자녀 양육방식이 다르다(Clarke-Stewart, 1978)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성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므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종속변인 남편과 부인의 부부 갈등에 대한 원가족 관련 독립변인의 설명력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외변인들 중 자기 원가족 부모와의 상호 왕래 횟수가 많을수록 그것이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과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엔 자기 원가족과의 상호 왕래 횟수가 부인이 지각한 부부 갈등과 유의한 상관은 있었으나, 부인의 부부 갈등에 유의한 설명력은 가지지 않았다. 즉 남편과 부인의 경우 함께 살지 않는 자기 원가족 부모와의 왕래는 원가족과의 밀착이라는 역기능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갈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 원가족과의 상호 왕래 횟수 증가는 남편의 부부 갈등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원가족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가 부부 갈등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가족과 관련한 부부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본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과 부인이 지각한 부부 갈등 모두에 남편의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의 설명력이 유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Dusey와 스기다 미네야스(김현수 역, 1992)의 건강한 사람 유형 분류에서 통제적 부모 자아(CP) 상태가 낮고, 양육적 부모 자아(NP) 상태나 어른 자아(A) 상태가 높을 때 건강하다는 주장과 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부 관계의 긴장과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제 삼자인 자녀를 그들 관계에 끌어들일 때 통제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자녀에게 불안과 긴장을 투사하며, 이 영향으로 자녀들은 다른 대상에게도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예정을 철회하거나 세상을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

하고, 이러한 감정을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일반화한다는 Larson과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 결과를 참 고해 볼 때 이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생각해보면,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지시하는 성향을 갖게되고 결과적으로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족 부모의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의 결과가 부부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체계의 확립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선행 연구(전춘애, 1994; Lavery, 1984; Mee-Gaik, 1991; VanAmerburgh, 1987)에서 부부 갈등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자아분화와 관련되는 개인 문화가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부부 갈등에 대한 설명력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 문화보다는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가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커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자녀를 1명 내지 2명을 둔 부부들이 90%이며, 결혼 기간 만 4년~10년인 부부들이 75%로 예비 부부들이나 신혼 초기의 부부들보다는 원가족으로부터 개인이 좀 더 분화되어 부부와 자녀 중심으로 가족 체계가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남편이 지각한 부부 갈등에는 남편 원가족 관련 변인들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반면, 부인이 지각한 부부 갈등에는 부인의 원가족 관련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원가족 문화 경험이 아내의 문화 경험보다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한 전춘애(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아내의 원가족 문화 경험이 남편의 원가족 문화 경험보다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한 Lim과 Jennings의 연구(1996)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생각건대, 우리 나라와 같이 친정보다는 시가가 우선시되고, 시가 중심적인 문화적 배경과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부인의

원가족과 관련되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본 연구는 결혼 기간 10년 미만인 부부들이 조사 대상자였으므로 이 범주를 벗어난 부부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행 연구가 적어 연구 결과의 해석과 논의에도 보다 많은 관련 후속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어야 좀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원가족 관련변인들 중 남편과 부인의 부부 갈등에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인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는 생후 5년을 전후로 결정되며 가장 많은 부분 부모와 부모 이외의 원가족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지만,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가외변인 예를들면, 또래의 영향이나 교사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는 동안의 과정 속에서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다른 제한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부 갈등에 미치는 원가족 관련변인들의 영향과 상호 관계에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 뿐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통제적 부모 자아 상태의 부부 갈등에의 영향과 관계, 자기 원가족과 배우자의 원가족과 관련한 부부 갈등에 있어 남편과 부인의 차이 등을 조사하여 밝혀낸 점에서 크게 의미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인보다는 남편들이 자기 원가족 내에서 지켜져온 가족 규칙 총합이나 감정 규칙, 위계규칙, 성과 성역할 규칙을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족 규칙은 의식적인 측면 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차원에도 연결되므로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다. 가령 남녀 간의 성역할 구분을 강하게 느끼고 자라온 남편일 수록 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여자가 하는 일로 여기고 부인을 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위계를 중시하는 가족 내에서 살아왔다면,

그런 남편일 수록 원가족과의 관계 특히 시가에 대한 위계를 아내에게 강조하기 쉽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평등하다는 생각을 덜 갖기 쉽다.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억누르는 감정 규칙이 원가족 내에서 있었다는 것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면, 그런 남편일 수록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감정 표현과 대화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가족 규칙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돋는 부부 대상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또한 부부의 통제적인 부모 자아 상태는 각 부부가 지각한 부부 갈등과 상관이 있고, 특히 남편의 통제적 자아 상태는 남편 자신과 부인의 부부 갈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통제적 자아 상태가 발달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방향으로 지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갈등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이성적, 합리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사용할 가능성보다는 더 높고 그러한 점에서 부부 대화 향상 프로그램이 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부의 부모 자아 상태는 그들의 원가족의 영향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므로 원가족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전체적으로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부부 갈등을 크게 느끼며, 자기 원가족과 남편과의 관계와 자신과 시댁가족과의 관계에서 남편들보다 갈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볼 때 원가족과 관련한 부인들의 갈등과 스트레스 해소방안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 2. 결론

본 연구는 원가족과 관련한 여러 독립변인들이 남편과 부인의 부부 갈등에 다차원으로 연관되어 있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남편의 통제적 자아 상태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부부 갈등 모두에 의미있는 설명력이 있었고, 원가족과 관련되는 관계요인으로 자기 원가족과 배우자, 자신과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관계 차원에서 부인들이

남편보다 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부 갈등에 대한 원가족 관련변인들의 관계와 영향을 입증한 연구의 하나로서 핵가족 부부가 부부 중심의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돋는 중재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가족과 핵가족 부부, 그리고 원가족 관련 연구자나 상담가들에게 원가족 및 부부 갈등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참고문헌

- 고현선(1993).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온순(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수, 류태보(1993). 교류분석치료. 서울: 형설출판사.
- 김수연, 김득성(1997).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59-74.
- 김순옥(1990).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및 이에 대한 가족구조변인의 영향. 한국기정관리학회지, 8(1), 143-156.
- 김정옥(1995). 가족스트레스, 가족체계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01-112.
- 김진희(1984).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역(1992). 스기다 미네야스 저. 교류분석. 서울: 민지사.
- 김혜경(1986).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옥(198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37.
- 송성자(1998).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328-330.
- 송성자, 정문자(1994). 경험적 가족치료: Satir 이론과 기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우재현(1999). 임상 교류분석(TA) 프로그램. 서울: 정암서원.
- 유가호(1976). 한국 도시 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종류 APT 가족의 자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79).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4, 1-13.
- 윤순임, 김인자, 설기문 외(2000). 현대상담·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경희, 옥선화(1999). 자기인식 향상을 통한 부부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시안. 대한가정학회지, 37(8), 29-42.
- 이기춘(1989). 교류분석(TA)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학적 시각. 서울: 기독교신학대학교 출판부.
- 이신영(1983). 결혼초기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만(1992).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6).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현미(1997). 원가족 척도연구-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 버지니아 사티어 연구회 역(2000). 사티어 모델: 가족 치료의 지평을 넘어서. {Virginia Satir, John Banmen, Jane Gerber & Maria Gomori}. 서울: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 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2). 2001년 상담통계분석 개

- 요. 가정상담, 3, 5-7.
- 한국교류분석협회(1995). 한국 표준화 이고그램 (KEG) 성인용 점검표
-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 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ne, E. (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4.
- Bohlander, R. W. (1999). Differentiation of self, need fulfill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arried men. *Psychological Reports*, 84(3), 1274-1280.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Gardner Press.
- Bray, J. H., Williamson, D. S., & Malone, P. E. (1984).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to measure personal authority in intergeneration family proc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67-178.
- Charles, R. (2001). Is there any empirical support for Bowen's concep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triangulation, and fusion?, *The American of Family Therapy*, 29, 279-292.
- Clarke-Stewart, K. A. (1978). And daddy makes three: The father's impact on the mother and young child. *Child Development*, 44, 466-478.
- Col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Indiana: The Bobbs-Merrill.
- Fagot, B. I. (1978). The influence of sex of child on parental relations to toddler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59-465.
- Farrel, M. P. & Bames, G. M. (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Feigal, T. J. (1985).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es, University of Iowa.
- Forrest, M. (1991).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 Garfinkel, H. N.(1980). Family system personality profile: An assessment instrument based on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ffin, J. M., & Apostol, R. A. (1993). The influence of relationship enhancement training on differentiation of self.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 267-272.
- Guerin, P. J., Fay, L. F., Burden, S. L., & Kautto, J. G. (1987). *Th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marital conflict: A four-stage approach*. Basic Books.
- Kear, J. (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Fresno Campus.
- Kinnard, K. L. & Gerrard, M. (1986).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divorce among young women as a function of their mothers' marital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757-765.
- Larson, J. H., & Wilson, S. M. (1998).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young adult career decision problems: A test of Bowenian theor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39-53.
- Larson, J. H., Benson, M. J., Wilson, S. M. & Medora,

- N. (1998).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marital attitudes and readiness for marriage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750-768.
- Lavery, P. J. (1984).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satisfaction. An exploratory analysis based on the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 Lim, M-G., & Jennings, G. H. (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r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MacCreaner, D. P.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perception of health in the family of origin and fusion and intimacy in the family of procreation.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Mee-Gaik, Ng. (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healthy unlike, unhealthy like, and unhealthy unlike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Monte, C. F. (1980). Beneath the mask: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personality* (2nd Ed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y Process*, 22, 69-83.
- Rice, F. P. (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Inc.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35-246.
- Vayghn, K. L. (1989). Differentiation of self: A validation study. Master Dissertation Abstracts, Texas Woman's University.
- VanAmburgh, B. B.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adjustment and the differentiation levels of the marital partners. Dissertation Abstracts.
- Wilcoxon, S. A. & Hovestadt, A. J. (1983). Perceived health and similarity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dyadic adjustment for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4), 431-434.

(2002년 10월 31일 접수, 2003년 3월 12일 채택)